스포츠 분야 트랜스젠더 배제(Trans-Exclusion)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이타니 사토코

우리의 존재가 반박의 대상이 될 때 생존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된다. 우리의 존재를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침식하는 시스템을 살아가며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존재의 침식에 일조하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의 자격이 없다.

- 사라 아메드(Sara Ahmed)¹

이타니 사토코(井谷聡子) 간사이대학(関西大学) 문학부 영미문화전수(英米文化専修) 준교수. 토론 토대학 박사과정을 마친 후, 2016년부터 현직에서 신체문화와 젠더, 섹슈얼리티에 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스포츠·메가이벤트에 반대하는 퀴어·액티비즘 및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선수의 스포츠 경험과 배제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저작으로는 「(新)植民地主義社会におけるオリンピックとプライドハウス」(『スポーツとジェンダー研究』 10, 日本スポーツとジェンダー学会) 등이 있다.

* 이 글은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ジェンダー研究』 23, 2020. 7.)에 “The ‘Feminist’ Discourse on Trans Exclusion from Sports”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비평』 편집위원회에서는 이 글이 이번 제23호 특집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저널 및 필자의 동의하에 번역·게재하기로 하였다.

<https://doi.org/10.29154/ILBI.2020.23.178>

1. 들어가며

작년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 people)의 성별분리영역(gender segregated space)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로 기록될 듯 하다. 특히 논의의 중심에는 트랜스젠더 여성(trans women)²이 있었다. 일본에서의 논의는 2018년 9월 발표된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学)의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촉발되었는데, 2020학년도부터 적용될 트랜스젠더 입학 허용 정책(trans-inclusive admission policy)³이 포함되어 있었고,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일본 여대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에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느닷없는 사건으로 느껴졌을 테지만, 세계 유수의 여대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에 허용하고 있었다.

2014년 밀스대학(Mills College)이 미국 여대 최초로 트랜스 여성의 입학에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동부의 세븐 시스터즈 대학(Seven Sisters Colleges),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여자 단과대학인 머레이 에드워즈 칼리지(Murray Edwards College) 또한 2017년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⁴ 물론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들의 변화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와 다양성, 탈이분법적 젠더 정체성 구분(non-binary gender identities),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s)에 대한 이해 증대 등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함께한 결과였다.

1 Sara Ahmed, "An Affinity of Hammers," *Transgender Studies Quarterly* 3(1-2), 2016, p. 31.

2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trans woman)은 MtF 트랜스젠더(Male-to-Female), "트랜스젠더 남성"(trans man)은 FtM 트랜스젠더(Female-to-Male)를 의미하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3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8/07/03/national/womens-university-tokyo-accept-transgender-students/>

4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7/oct/04/women-only-cambridge-college-to-allow-students-who-identify-as-female-murray-edwards>

누가 여성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하는 기준은 그 개인이 여성전용영역(women-only space)에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과 맞닿아 있다.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페미니즘 진영을 둘로 갈라 놓았고⁵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또한 이런 분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스스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제니스 레이먼드(Janice Raymond)가 『성전환제국: 쉬메일의 탄생』(*The Transsexual Empire: The making of the She-Male*, 1979)을 출판한 이후 트랜스젠더 배제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은 “생물학적 남성”(biological male)으로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여성전용영역을 잠식하며, 시스젠더(cisgender, 출생 시의 지정 성별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웁긴이) 여성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음을 주로 지적했다. 최근 10년 동안의 거대한 사회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s, 트랜스젠더 배제를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웁긴이)로 알려진, 트랜스젠더 포용(trans inclusion)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그룹은 여성의 권리와 안전 논리 그리고 생물학적 성(sex/gender) 결정론 등 레이먼드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침범하고 있고, 여성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여겨지는 여성전용영역 중 하나가 스포츠다. 스포츠 분야에서 트랜스젠더 포용 이슈(inclusion of trans people)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최근의 트랜스젠더 포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스포츠에 참가해서 여자 선수와 경쟁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은, 트랜스젠더 여성과 시스젠더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시스젠더 여성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한다고 강조한다. 불공

5 Shannon Weber, “Womanhood Does not Reside in Documentation”: Queer and Feminist Student Activism for Transgender Women’s Inclusion at Women’s Colleges,” *Journal of Lesbian Studies* 20(1), 2015, pp. 29~45.

정한 경쟁의 결과, 시스젠더 여성이 우승해서 상금을 타거나 스포츠 장학생이 될 기회가 줄어들거나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대회 참가가 허용되면 우리가 아는 여성 스포츠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토론 중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졌지만 본다면, 전세계적으로 여자 대회에 참가하는 트랜스젠더 선수(trans athletes)의 수가 급증한 것처럼 느껴진다. 트랜스젠더 소녀와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따라, 남자 부문 또는 여자 부문에 선택 출전할 수 있는 권리도 토론에 새로 등장한 주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트랜스젠더는 정상급 대회(elite level sport)에 참가해 왔으며, 참가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늦어도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⁶ 선수의 젠더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에 대한 논란도 새로운 일이 아니다. 어떤 여성이 여자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성적”(women enough)인가에 대한 기준은 많은 여성들이 취미 스포츠나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 이후 항상 첨예한 논쟁거리였다.⁷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스포츠 대회의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를 둘러싼 ‘페미니즘’ 담론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페미니즘’ 담론들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거나, 여성의 권리와 트랜스젠더 권리(trans rights)를 포함한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생산한 문서와 담론을 포함한다. 필자는 미국과 영국의 미디어에 게

6 르네 리처드(Renée Richards)는 전 프로 테니스 선수로, 트랜스젠더임을 공개하고 프로 또는 정상급 스포츠에 참가한 첫 번째 트랜스젠더 선수로 여겨진다. 리처드의 삶과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두 권의 자서전을 참고. Renée Richards, *Second Serve: The Renee Richards Story*, New York: Stein and Day, 1983와 Renée Richards, *No Way Renée: The Second Half of My Notorious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2007.

7 Susan K. Cahn, *Coming on Strong: Gender and 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Women's Sports*, Champaign,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5.

제된 스포츠 분야 트랜스젠더 여성 관련 글과 트윗을 수집했고, 특히 이들 중 일본 트위터에 2018~2019년 인용된 글과 트윗에 주목했다. 논의를 시작하면서 여자 스포츠에서 성별 감정(gender verifications)과 트랜스젠더 선수 포용에 대한 논의의 역사와 논란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 트랜스젠더의 긴 역사와 더불어, 범 페미니스트 투쟁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논의를 그 역사의 맥락 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두 가지 담화는 “다름에서 비롯된 트랜스젠더 배제”(trans exclusion because of the difference)와 “같음에서 비롯된 트랜스젠더 포용”(trans inclusion because of the sameness)이다. 이 두 담론은 모두 여성의 열등함(female inferiority)이라는 성차별 논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성애 가부장적 젠더 질서(heteropatriarchal gender order)에 토대를 제공하는 젠더 이분법(gender binary)을 강화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더 나아가 생물학적 결정론(biological determinism) 담론은 현대 스포츠 역사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서구의 스포츠 당국의 눈에 “지나치게 남성적인” 여성이 배제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폭력적인 젠더 테스트 정책의 실시로 이어졌고, 이 테스트는 개발도상국 출신 여자 선수들을 타겟으로 불균등하게 실시되었다. 다시 말해, 여자 대회에 트랜스젠더 여성 참가를 반대하는 논리에 본질주의적 주장(essentialist argument)이 자주 인용되는데, 이 주장은 여자 스포츠 역사에서 성차별과 깊이 연관될 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가 남긴 유산인 인종차별과 젠더 이분법 체계와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권리가 작게는 일본의 ‘페미니즘’ 진영에서 크게는 사회 전체에서 관심사가 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트랜스젠더 포용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담론은 보수 세력의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

한 일종의 트랜스젠더포비아(성전환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대적 태도 또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오키인)적인 공격에 동조하면서, 페미니즘 정치학에서 극우 세력에 의한 비틀림(warping)⁸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이 결과적으로 여성혐오, 인종차별, 호모포비아적 정치 아젠다로 이어지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다.

2. 스포츠와 젠더화된 몸의 생물학적 결정론

여성과 남성 간 “생물학적 차이” 담론이 가부장제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은 많은 페미니스트 스포츠 학자들이 지적해 온 바이다.⁹ 그들은 여성 신체의 연약함, 불안정함을 전제로 하는 본질주의적 젠더 담론(essentialist discourse of gender)이 어떻게 여성의 존재 영역과 삶의 열망을 제한하는지 비평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본질주의적 개념들과 오랫동안 싸워 왔다. 하지만 인터섹스(intersex, 전형적인 여성이나 남성으로 판별할 수 없도록 생식 또는 성적 해부학적 구조나 염색체 패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오키인)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완고하게 뿌리내린 주장들에 맞서 싸울 때 남성뿐 아니라 여성, 더구나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인식하는 여성들의 반발에 맞닥뜨리게 된다.

스포츠에서 여성 배제가 기반하고 있는 논리는 20세기를 지나며 바뀌어 왔지만, 변화된 논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⁸ Lisa Yoneyam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⁹ Susan K. Cahn, *Coming on Strong: Gender and 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Women's Sports*; M. Ann Hall, *Feminism and Sporting Bodies: Essays on Theory and Practice*,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996; Patricia A. Vertinsky, *The Eternally Wounded Women: Women, Doctors, and Exercis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차이에 대해 끈질기게 매달린다. 19세기 이후 그리고 20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여성은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고 취급되었다. 다수의 의학 전문가와 체육 지도자들이 “투쟁적 경기”(game of strife)는 여성적 매력을 반감시키며, 신체의 재생산 기관과 여성다운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훼손한다고 믿었다.¹⁰

생물학적 젠더 차이에 대한 새로운 담론은 국제 스포츠계에서 “젠더 사기”(gender fraud)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면서 등장했다. 사기꾼 남자(male imposter)와 인터섹스 선수들이 자신의 인종적 우월함이나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자 대회에 “침범”한 사건들은 경쟁의 “순수성”(purity)과 “공정한 경기”(fair play)라는 이상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¹¹ 그 결과 여자 부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엄격한 젠더 단속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베이빙톤(L. Dawn Bavington)은 이를 “성 통제”(sex control)라 칭한다.¹²

성별 감정 테스트는 1930년도에 도입되어 많은 국제 스포츠 기구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육상(World Athletics, 전(前) 국제육상경기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IAAF)], 국제축구연맹(FIFA)의 테스트가 가장 악명 높았다. 성별 감정 테스트는 여러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모두 설득력 없고, 일관성 없고, 비효율적인 방식임이 여러 차례 판명되었다. 선수, 학계, 의료 당국은 오랫동안 성별

10 Susan K. Cahn, *Coming on Strong: Gender and 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Women's Sports*; Patricia A. Vertinsky, *The Eternally Wounded Women: Women, Doctors, and Exercis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11 Kathryn E. Henne, *Testing for Athlete Citizenship: Regulating Doping and Sex in Sport*,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5.

12 L. Dawn Bavington, “Sex Control in Women's Sport: A History of the Present Regulations on Hyperandrogenism in Female Athletes,” Vikki Krane, ed., *Sex, Gender, and Sexuality in Sport: Queer Inquiries*, New York: Routledge, 2019.

감정 테스트가 인터섹스를 포함한 여자 선수들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차별적,¹³ 인종차별적¹⁴ 요소 또한 있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1992년과 1999년 IAAF와 IOC는 각각 모든 여자 선수들에 부과된 의무적 젠더 테스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선수의 성별이 의심이 되는 경우 젠더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 놓았다. 이후 젠더 테스트 제도는 2012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폐지되는 듯했으나, 같은 해 안드로젠 과다증(hyperandrogenism) 관련 새 규정이 도입되었다.

성별 감정 테스트를 위한 안드로젠 과다증에 대한 규정에 대해 과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불충분함을 보여 주었고,¹⁵ 이 규정이 운동 능력에 미치는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호르몬의 일종)의 영향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⁶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여자 선수들이 한 세기에 가깝도록 인권 침해적인 성별 감정 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다큐멘터리 <아네트 네게사:

- 13 P. Vignetti, A. Rizzuti, L. Bruni, M. C. Tozzi, P. Marcozzi, and I. Torani, "Sex Passport' Obligation for Female Athletes: Consideration and Criticisms on 364 Sub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edicine* 17(3), 1996 pp. 239~240.
- 14 Ann Travers, "Queering Sport: Lesbian Softball Leagues and the Transgender Challenge,"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1, 2006, pp. 431~446; L. Dawn Bavington, "Sex Control in Women's Sport: A History of the Present Regulations on Hyperandrogenism in Female Athletes," pp. 181~201.
- 15 Malcolm A. Ferguson-Smith and L. Dawn Bavington, "Natural Selection for Genetic Variants in Sport: The Role of Y Chromosome Genes in Elite Female Athletes with 46, XY DSD," *Sports Medicine* 44, 2014, pp. 1629~1634; Peter H. Sónksen, L. Dawn Bavington, Tran Boehning, David Cowan, Nishan Guha, Richard Holt, Katrina Karkazis, Malcolm Andrew Ferguson-Smith, Jovan Mircetic, and Dankmar Böhning, "Hyperandrogenism Controversy in Elite Women's Sport: An examination and Critique of Recent Evidenc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2, 2018, pp. 1481~1482.
- 16 Katrina Karkazis, Rebecca Jordan-Young, Georgiann Davis, and Silvia Camporesi, "Out of Bounds? A Critique of the New Policies on Hyperandrogenism in Elite Female Athlete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2(7), 2012, pp. 3~16.

인권 보호를 무시한 IAAF)(Annet Negesa-How the IAAF Fails to Ensure Human Rights, 2019)는 성별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동시에 건강과 사회적인 삶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 낸다. 안드로겐 과다증 규정을 감내해야 했던 우간다의 중거리 달리기 선수 아네트 네게사(Annet Negesa)¹⁷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는 여자 선수들이 성별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스포츠계에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며 건강 문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됨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폭로한다.

페미니스트 학자이자 오랜 기간 인터섹스 선수의 권리를 주장해 온 파요쉬니 미트라(Payoshni Mitra)는 현재 IOC와 IAAF가 도입한 안드로겐 과다증 규정에 대해 비판한다. 미트라는 이 규정이 “젊은 선수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수의 성별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DSD(disorders of sex development, 성 발달 이상)를 가지고 있다고 아웃팅(outing, 폭로) 당한 선수들은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가해질 위험까지 감당해야 한다”¹⁸고 한다.

안드로겐 과다증 규정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대회 참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자 대회 참가를 허용할 정도의 “충

17 아네트 네게사(Annet Negesa)는 우간다 출신의 전 스타 중거리 달리기 선수로, 2012년 런던 올림픽 800m 결승전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간다의 메달 기대주였으나, 공개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네게사는 생식샘 제거를 강요받았는데, 수술 과정이나 잠재적 합병증, 결과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그를 인터섹스/성 발달 차이(Differences in Sex Developments, DSD)를 가진 개인으로 정의한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된 이후, 그는 27세의 나이에 독일로 망명한다. 고국 우간다에서 LGBTQ는 폭력과 처형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Ben Rumsby, 2019, Dec. 5, “Intersex ex-athlete Annet Negesa “Relieved and Happy” to Be Granted Asylum in Germany,” *The Telegraph*(Retrieved December 7, 2019, <https://www.telegraph.co.uk/athletics/2019/12/05/intersex-ex-athlete-annet-negesa-relieved-happy-granted-asylum/>).

18 <https://www.telegraph.co.uk/athletics/2019/12/05/intersex-ex-athlete-annet-negesa-relieved-happy-granted-asylum/>

분한 여성스러움”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된다. 스포츠에서 인터섹스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젠더에 대해 확인을 받는 방식은 다르지만, 두 집단은 모두 여자 대회 참가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바꿀 것을 요구받는다. 왜냐하면 인터섹스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스포츠 당국의 논리에 따르면, 인터섹스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남성들)에 비해 생물학적인 능력이 열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IAAF가 안드로겐 과다증 규정을 도입할 때, “스포츠의 관점에서”(for sport purpose) 여성과 남성의 경계점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10 nmol/L이다. 테스토스테론은 흔히 “남성 호르몬”(male hormone)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탓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¹⁹ 다음 장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텐데, 10 nmol/L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대회 참가가 허용되는 최대 호르몬 수치다.

3.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역사 개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는 2004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IOC가 “스포츠에서 성 재지정을 위한 스톡홀름 합의”(Stockholm consensus on sex reassignment in sports)를 도출해 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전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19 조딘-영과 카르카지스의 주장에 의하면, “성 호르몬 개념,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젠은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일차적인 호르몬들로서 그 수치가 증가하는 요인” 등과 같은 설명은 이 호르몬들의 기능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추측들을 만들어 낸다(Rebecca M. Jordan-Young and Katrina Karkazis, *Testosterone: An Unauthorized Biography*,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과학자들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젠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생산된다는 사실과, 두 호르몬은 양쪽 성의 생리학적 발달에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었다. Nelly Oudshoorn, *Beyond the Natural Body: An Archeology of Sex Hormones*, London: Routledge, 1994; Anne Fausto-Sterling, *Sexing the Body: Gender Politics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ity*, New York: Basic Books, 2000.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 선수로서 성공한 예를 들자면, 테니스 스타 르네 리처드(Renée Richards), 데카슬론 금메달리스트 케이틀린 제너(Caitlyn Jenner), 1984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소수의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산의 제왕”(The King of the Mountains) 타이틀을 거머쥔 필리파 요크(Philippa York) 등이 있다.²⁰ 하지만 초기 엘리트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삶은 젠더 정체성과 선수로서의 커리어, 성전환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들의 연속이었다.

IOC에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선수들은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젠더 정체성 사이에서 여전히 복잡한 고민을 해야 했다. 일부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호르몬 치료나 성별적합수술[gender affirming surgery, 일반적으로 성 재지정 수술(SER, sex reassignment surgery)로 알려져 있음] 등 성전환을 위해 의료적 방법을 이용했으며, 정상급 대회에서 은퇴한 이후에야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했다(예: Caitlyn Jenner, Philippa York). 일부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선수 생활 중에 트랜스젠더임을 공개하고도 정상급 대회에서 은퇴하고 나서야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했다(예: Keelin Godsey, Kye Allums, Balian Bushchbaun). 성별적합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확정된 젠더 부문(affirmed gender category)에 참가해서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어 나간 선수들도 있다(예: Renée Richards, Mianne Bagger, Michelle Dumaresq, Hiromasa Ando,²¹ Patricio Manuel 등). 또 어떤 선수들은 성전환 수술을 시작한 이후에 자의였든 타의였든 기존의 젠더 부문을 바꾸지 않고 선수 생

20 이 선수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나 더욱 최근에 트랜스젠더임을 공개한 선수들에 관한 사례는 Joanna Harper, *Sporting Gender: The History, Science, and Stories of Transgender and Intersex Athletes*,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19를 참고.

21 히로마사 안도(Hiromasa Ando)는 일본의 스피드보트 레이스 선수다. 안도는 여자 선수로 시작했으나, 이후에 젠더 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를 가지고 있음을 공개한 후 남자로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갔다. 그의 자서전을 참고하라. 安藤大将, 「スカートをはいた少年: こうして私はボクになった」, ブックマン社, 2002.

활을 계속하기도 했다(예: Jaiyah Saelua,²² Mack Beggs).

스포츠 대회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참가한 긴 역사에서, 트랜스젠더로서 공개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일부 서구 국가의 선수들은 스포츠계 안팎에서 거대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선수들과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가들은 엄격한 이분법적 젠더 구분과 시스젠더주의(cisgenderism, 지정성별에 의한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는 신념을 전제로 규범적 사회구조 바깥에 있는 젠더를 배제하려는 태도-옴긴이)에 도전하며, 스포츠계에서 트랜스젠더가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하지만 현대 스포츠에서도 엄격한 이분법적 젠더 구분은 지속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선수가 확정된 젠더 부문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남았다. IOC가 트랜스젠더 정책을 만들기 전까지는 트랜스젠더 선수 허용 문제는 대부분 각각의 스포츠 기구들이 독립적으로 각 사안별로 다루어 왔다.

스웨덴, 프랑스, 미국 출신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IOC 정책은 아래와 같다.

모든 “사춘기 이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재지정이 된 이들은 소녀나 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재지정된 이들 역시 소년이나 남자로 간주되어야 한다.²³

22 자이야 사엘루아(Jaiyah Saelua)는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모아 문화에서 파파피네(*fa'afafine*), 즉 “제3의 성”으로 인식된다. 사엘루아는 FIFA가 FIFA 월드컵 대회 참가를 허용한 첫 트랜스젠더 축구 선수로 알려져 있으나, *fa'afafine*라는 개념은 서구의 트랜스젠더 개념과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 사엘루아를 포함한 이유는, 그가 다양한 젠더를 가진 선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23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tatement of the Stockholm Consensus on Sex Reassignment in Sports,” 2004(Retrieved April 4, 2007,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Reports/EN/en_report_905.pdf).

이 문서에는 사춘기 이전의 “성 재지정”(sex reassignment, 성전환의 다른 말, 출생 시에 지정된 성을 다시 지정한다는 관점을 반영-옮김)에 어떤 절차가 포함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또한 IOC는 사춘기 이후 성 재지정을 한 이들은 모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 “외부 생식기 변화와 생식샘 제거(gonadectomy)를 포함한 외과적, 해부학적 변화가 완료되어야 하고”, 2) “지정된 성이 관할 당국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3) “지정된 성을 위한 적절한 호르몬 치료가 증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성별에서 기인한 이점이 스포츠 대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²⁴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생식샘 제거 이후 최소 2년”²⁵이라고 세부사항을 밝혀 놓고 있다.

규정은 2015년 11월 개정되었는데, 새 규정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에게 성확정 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을 요구하지 않는다. IOC는 또한 법률상 인정 조항을 폐지했다. 트랜스젠더 남성은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남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²⁶ 반면에 트랜스젠더 여성은 “선수 본인 혈청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대회 참가 직전 12개월간 10 nmol/L 이하로 유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더욱이 트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은 모두 최소 4년 동안 참가를 원하는 성별

24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tatement of the Stockholm Consensus on Sex Reassignment in Sports,” 2004(Retrieved April 4, 2007,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Reports/EN/en_report_905.pdf).

25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tatement of the Stockholm Consensus on Sex Reassignment in Sports.”

26 트랜스젠더 남성이 젠더 확정 치료 목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라면,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로부터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WADA(2017)는 트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을 위해 호르몬 이용에 관한 요구사항을 아홉 쪽의 설명서 “TUE 의사 가이드라인: 트랜스젠더 선수(The World Anti-Doping Agency, “TUE Physician Guidelines: Transgender Athletes,” 2017(Retrieved Oct 1, 2018, https://www.wada-ama.org/sites/default/files/resources/files/tuec_transgender_version1.0.pdf))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을 선언하고 유지해야 한다.²⁷ 또한 규정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경우 남자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²⁸ 라고 밝히고 있다.

IOC의 트랜스젠더 정책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선수들, 스포츠 당국과 스포츠 팬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일부는 여자 스포츠가 “여자인 척 하는 남자들”²⁹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반대로 IOC 정책이 더욱 포용적인 스포츠계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한 이들도 있었다. 헤더 사이스(Heather Sykes)³⁰는 IOC 정책과 같이 서구의 이분법적 젠더 정체성 구분 체계에 기반한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제한적”(necessarily limiting)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젠더 범주의 다양한 존재 양상과 다양한 젠더 소수자들의 서로 다른 모순적 이해”³¹들 때문에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IOC 정책은 스포츠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면서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많은 수의 스포츠 기구

27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Consensus Meeting on Sex Reassignment and Hyperandrogenism November 2015,” 2015(Retrieved December 1, 2019,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Commissions_PDFfiles/Medical_commission/2015-11_ioc_consensus_meeting_on_sex_reassignment_and_hyperandrogenism-en.pdf)

28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Consensus Meeting on Sex Reassignment and Hyperandrogenism November 2015,” 2015(Retrieved December 1, 2019,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Commissions_PDFfiles/Medical_commission/2015-11_ioc_consensus_meeting_on_sex_reassignment_and_hyperandrogenism-en.pdf).

29 Joanna Harper, *Sporting Gender: The History, Science, and Stories of Transgender and Intersex Athletes*, 2019.

30 Heather Sykes, “Transsexual and Transgender Policies in Sport,” *Women in Sport & Physical Activity Journal* 15(1), 2006, pp. 3-13.

31 Sykes, Heather, “Transsexual and Transgender Policies in Sport,” *Women in Sport & Physical Activity Journal* 15(1), 2006, p. 4.

들이 IOC 정책과 동일하거나 수정을 가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³² 국제 스포츠 기구뿐 아니라 국내 기구와 비영리 기구들까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미국학교체육재단(National Scholastic Athletics Foundation, NSAF) 등 학교 스포츠 기구들은 한층 더 포용적인 정책을 도입해서, 트랜스젠더 어린이나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을 우선시해 대회 참가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낮추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17개 주에서 고등학생 대회 참가 허용 조건으로 외과적, 호르몬적 조건을 달지 않는 포용적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8개 주에서는 출생신고서 상의 성별을 기준으로 대회 참가를 허용하거나 외과 수술을 완료하고 호르몬 대기 기간(hormone wait period)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다.³³ 나머지 주들은 관련 정책이 없거나 사안 별로 평가해서 각 사안마다 다소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한계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의 존재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확정된 젠더 부문에서 경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참여를 독려했다.

4. 트랜스젠더 포용에 대한 반대 담론:

다름에서 비롯된 배제

21세기 들어 트랜스젠더 선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IOC 정책을 비롯한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해 큰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

32 井谷聡子·來田亨子, 「スポーツとセクシュアリティ」, 『データで見るスポーツとジェンダー (Understanding Sport and Gender with Data)』, 八千代出版, 2016, 150~176쪽.

33 <https://www.transathlete.com/k-12>

다. 이번 장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트랜스젠더 배제 담화를 분석한다.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들 나라들이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캐나다의 성공한 산악 자전거 레이스(downhill mountain bike racing) 선수인 미셸 둠라레스크(Michelle Dumaresq)일 것이다. 미셸 둠라레스크는 2001년 26세의 나이에 여성 부문에 참가했다. “스톡홀름 합의”(Stockholm Consensus)가 도출되기 3년 전이었고, 성별적합수술을 받은 지 5년 후였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사이클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여성 산악 자전거 멘토들도 한때는 둠라레스크를 독려하고 훈련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여성 레이스에서 둠라레스크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그가 여자 부문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경쟁자였던 여자 선수들 중 일부는 협회에 항의서를 전달했고 둠라레스크는 일시 출전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레이스를 재개할 수 있었는데, 법적인 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 둠라레스크가 캐나다 여성 산악 자전거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난 후에도 한 차례 더 소동이 있었다. 준우승한 여자 선수가 시상식에 “2006년 100% 여자 챔피언”(100% women champ 2006)이라는 말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채 나타난 것이다.

선수들뿐 아니라 보수 미디어도 가세했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적 매체로 알려져 있는 브라이바트 뉴스 네트워크(Breitbart News Network)는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극우뉴스 웹사이트이다.³⁴ 2016년 브라이바트는 “올림픽, 수술 전의 MTF 트랜스젠더(Pre-Op M-to-F Transsexual)들이 여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 완

34 Michael M. Grynbaum and John Herrman, “Breitbart Rises From Outlier to Potent Voice in Campaign,” *The New York Times*, 2016, August 26 (Retrieved February 3, 2020, <https://www.nytimes.com/2016/08/27/business/media/breitbart-news-presidential-race.html>).

화”(Olympics Loosen Rules to Allow Pre-Op M-to-F Transsexuals to Compete with Women)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IOC의 2015년 트랜스젠더 정책 개정에 대한 반발이었다. 기사는 전형적인 트랜스젠더포비아 담론으로 시작하는데,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과 동일시하면서 이들이 여자 스포츠 대회 등 여성전용영역을 착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여성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림픽을 꿈꾸는 모험심 강한 선수들에게 최고의 뉴스가 있다. 스스로 여성으로 선언하고 대회 전 최소 12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0 nmol/L 미만으로 유지한 남자 선수는 여자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³⁵

IOC의 포용 정책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이 기사는 트랜스젠더 배제가 성차별과 공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이면서 여성 대회에 참가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나약한 이류 선수로 취급된다.

더 최근의 예로는 2019년 5월 트랜스젠더 사이클 선수 레이첼 맥किन(Rachel McKinnon)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들 수 있다. 기고문에서 맥किन은, 한 달 전 자신이 여자 대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가 비판하는 트윗을 올린 후 수많은 살해 위협과 온라인 상에서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면 “여자 스포츠와 여자 선수들이 전 생애를 바쳐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³⁶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맥किन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트랜스젠더포

35 <https://www.breitbart.com/sports/2016/01/22/olympics-allow-transsexuals-to-compete-under-gender-they-identify-with/>

36 <https://twitter.com/donaldjtrumpjr/status/1186275133494910976?lang=en>

비아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직접적이고 위협한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프로 선수,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이런 공격을 가할 때 위협은 더욱 커진다. 미국 내 트랜스젠더 살인 건수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수많은 반(反) 트랜스젠더 법령을 발효시켰다.³⁷

트랜스젠더와 퀴어 운동에 대한 반발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이른바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들이 발의되고 통과되어, 트랜스젠더의 젠더 정체성에 따른 성별분리영역 출입이 금지되었다. 스포츠 분야 반 트랜스젠더 움직임은 (종교적) 우파 진영의 의심과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그들의 정치 캠페인의 연장선 안에서 반 트랜스젠더 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퀴어 운동가들을 포함한 페미니스트들은 수십 년간 이런 차별과 폭력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 왔다.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스포츠 운동가들은 스포츠에서의 성차별과 호모포비아를 오랫동안 비판해 왔으며,³⁸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에 대한 배제를 야기하는 젠더 이분법도 비판의 대상이었다.³⁹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새롭게 전개된 스포츠 분야에서의 반 트랜스젠더 움직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배제 담론이 선수 커뮤니티와 보수 온라인 미디어를 넘어서 정치계까지 널리

37 <https://www.transequality.org/the-discrimination-administration>

38 Susan K. Cahn, *Coming on Strong: Gender and 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Women's Sports*; Pat Griffin, *Strong Women, Deep Closet: Lesbians and Homophobia in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998; Jefferson Helen Lenskyj, *Out of Bounds: Women, Sport and Sexuality*, Toronto: Women's Press, 1986; Brian Pronger, *Arena of Masculinity: Sports, Homosexuality, and the Meaning of Sex*,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2.

39 Adam Love, "Transgender Exclusion and Inclusion in Sport," Jennifer Hargreaves and Eric Anderson, eds., *Routledge Handbook of Sport, Gender and Sexuality*, London: Routledge, 2014, pp. 376~383; Heather Sykes, *Queer Bodies: Sexualities, Genders, & Fatness i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Peter Lang, 2010; Ann Travers, "Queering Sport: Lesbian Softball Leagues and the Transgender Challenge," pp. 431~446.

확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캠페인과 점점 행보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자. “여성을 위한 공정한 경기”(Fair Play for Women, FPFW)라는 영국의 보수적인 반 트랜스젠더 캠페인 단체가 있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는 자신들을 “영국 소녀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거와 분석 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캠페인/자문 단체”⁴⁰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의 역사를 보면 2017년 “트랜스젠더 정책이 스포츠에서 여성과 소녀의 참여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여성들의 소규모 단체로 시작했는데, 트랜스젠더 관련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하는 캠페인으로 규모를 확장했다. 특히 영국의 2004년 젠더 승인법(2004 Gender Recognition Act) 개정 발의와 관련해 대규모 활동을 전개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권리는 때에 따라 성별(sex)에 의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대우가 다를 수 있다는 데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확하게 개인의 성별(sex)의 물리적 현실(material reality)을 정확하게 구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⁴¹

이 단체는 스포츠 분야 여성에 대한 우려에서 설립되었지만, 스포츠 당국이 선수의 성별이라는 “물리적 현실”에 따라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점철된 역사에 대한 고민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건너뛰었다. 하지만 스포츠 당국의 이러한 성 분리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끔찍한 위해를 가져왔다. 또한 이분법적 젠더 논리는 스포츠에서 남성의 전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고 여성에 대한 배제

40 <https://www.fairplayforwomen.com/>

41 <https://www.fairplayforwomen.com/jkrowling/>

(exclusion)를 초래했는데, 선수뿐 아니라 코치, 팀과 조직 운영 등 모든 구성원과 분야에 걸쳐서 행해졌다.

북미 지역에서도 여자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려는 비슷한 캠페인이 있었다. 지난 6월 코네티컷 주에서 세 명의 소녀들이 연방 타이틀 나인(Title IX)에 의거해 차별 항의서를 전달했다.

여성들은 타이틀 나인에서 보장한 운동 기회의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 왔다. 소년들의 소녀 대회 참가 허용은 타이틀 나인 하에서 여성들이 일궈 온 50년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소녀들이 자신들의 스포츠에서 관중으로만 남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⁴²

타이틀 나인은 미국 연방 시민권리법(civil rights law)으로 1972년 교육법 수정안(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에 포함되어 있다. 타이틀 나인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타이틀 나인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와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타이틀 나인에는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학교 체육은 가장 큰 저항이 있었던 영역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 기회와 재정 분배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었다.

소녀들의 타이틀 나인 항의서가 검토되는 동안 소녀들의 가족들

42 <https://www.apnews.com/3966a7d34fc64dd886aa12116795c7b7>

이 2020년 2월 12일 코네티컷 학교 협회(Connecticut Association of Schools, CAS)를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코네티컷 학교 간 체육 위원회(Connecticut Interscholastic Athletic Conference) 규정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확정된 젠더 부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었다.⁴³ 코네티컷 주는 고등학교 대회 참가 조건으로 호르몬 치료나 성별적합수술을 부과하지 않는 미국 17개 주 중 하나다.

소녀들의 가족들이 타이틀 나인에 의거해서 고소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인데, 이들이 승소한다면 스포츠에서 배제될 대상은 시스젠더 소녀들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소녀들이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청구인 중 한 명인 첼시 미첼(Chelsea Mitchell)은 “어떤 소녀도 출발선부터 놓인 장애물에 막혀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지난 시즌 스테이트 오픈 챔피언십과 뉴잉글랜드 챔피언십(State Open and New England championship)에서 시스젠더 소녀 스포츠는 부정 당했고”, 시스젠더 소녀들의 자리를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잠식해 간다”는 주장을 폈다.

이 소송에서 경합하는 가치는 시스젠더 소녀의 “우승”할 권리와 트랜스젠더 소녀들의 참가할 권리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는 한 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상급 대회에 참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영예는 땀 흘린 노력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혜택의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유전적 특성과 함께 양질의 영양 섭취, 훌륭한 코치와 팀, 훈련 시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특권이 그것이다. 시스젠더든 트랜스젠더든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은 스포츠 장학금을 받거나 시상대에 설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그럼 생

43 <https://www.courant.com/sports/high-schools/hc-sp-ciac-transgender-federal-lawsuit-20200212-20200212-wjk3p4i3evh25ayp7kksef4i-story.html>

물학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다른 여자 선수들에 의해 패배 당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인가?

보수적 기독교 법률 회사인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타이틀 나인 항의서 제출과 연방 소송에 참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DF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련 다른 경합 이슈(contested issues)들에도 관여하고 있고 낙태금지, 동성결혼 반대 등을 주장하는 보수 종교계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로펌이 트랜스젠더 선수 이슈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포츠에서 이분법적 젠더 구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명히 보여 준다. 즉, 트랜스젠더 이슈는 보수계의 관점에서 보기에 젠더와 가족이 위협받고 있는 중요 영역 중의 하나로, 낙태, 결혼 등과 함께 다루어진다.

역설적이게도 미국 종교계 보수주의자들은 약 50년 전 타이틀 나인(Title IX)이 발효되었을 때 법 실시에 저항한 세력이었다. 결국 이번 사례를 통해서 페미니스트 정치에서의 “비틀림”(warping)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볼 수 있다. “여성권”(women’s rights)과 “보호”라는 말은 이분법적 젠더를 강화하고 트랜스젠더를 공적 생활에서 배제시킨다. 트위터에서는 여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 배제를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TERF)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자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배제는 “급진적”이지도 않고 여성권을 보호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종류의 정치가 주류(시스젠더) 여성의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자(트랜스젠더) 여성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보수적이고 차별적 정치다.

소수자에 대한 이런 비틀림은 구식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전술로, 논점을 흐려 주류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된다. FPFW와 ADF는 트랜스젠더 소녀와 여성을 “남자”(man), “남성”(male)으로 호칭하며 트랜스

젠더 소녀와 트랜스젠더 여성을 주류 젠더(남자)로 만들어 버리고 이 남자들이 소수자인 시스젠더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흐름을 잡는다. 같은 논리를 이용한 논점 흐리기 전술이 페미니즘과 유색 인종의 시민권 운동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공격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류 세력(백인/남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소수자로 포지셔닝한다. 자신들이 여성과 유색 인종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억압받는 소수자라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다수의 트랜스젠더 배제 담론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지칭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트랜스젠더화된 남성”(transgendered men)이라고 지칭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기꾼”(cheater), 잠재적 “성 범죄자”(sexual predators)라고까지 부른다. “사기꾼”, “여성에 대한 위협” 담론은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토비 뷰챔프(Toby Beauchamp)⁴⁴는 『잠행: 트랜스젠더 정치와 미국의 감시 체계』(*Going Stealth: Transgender Politics and U.S. Surveillance Practices*)라는 책에서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젠더와 인종으로 구분된 공공화장실 담론을 분석한다. 뷰챔프는 이 분석에서 이분법적 젠더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문명화된 사회와 덜 문명화된 사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⁴⁵ 역할을 했음을 보여 주며, 이 과정이 흑인 남성이 순수한 백인 여성에게 거대한 성적 위협을 가한다는 인종적 편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편견은 공공장소에서 인종 분리를 정당화하고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4 Toby Beauchamp, *Going Stealth: Transgender Politics and U.S. Surveillance Practic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9.

45 Toby Beauchamp, *Going Stealth: Transgender Politics and U.S. Surveillance Practices*.

스캇 모겐센(Scott Morgensen)⁴⁶에 따르면, 유럽 출신의 식민지 정착자들의 눈에 비친 원주민들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다양한 풍습은 “원주민 사회가 가진 원시성의 일반적인 징표들”⁴⁷이었다.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정착자들은 “식민지 시신정치”[necropolitics, 카메룬의 철학자 아킬레 음베펬(Achille Mbembe)가 탐구한 개념으로 사회정치적 권력을 동원해 사람들이 살고 죽는 방식을 지시하는 통치 방식-육간이]를 생산하며 원주민을 죽음이 드리워진 기괴한(queer)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웠다⁴⁸고 주장한다.

식민지 시신정치는 오늘날로 이어져 퀴어와 젠더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people, 젠더에 대한 관습적 기대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육간이)를 향한, 마치 인종학살 같은 폭력의 고삐를 푸는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지역들 어디서나, 트랜스젠더가 피해자가 되는 폭력이나 살인 사건 수는 최고치에 이르렀고, 이런 폭력은 유색인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더욱 빈번하게 자행된다. 스포츠에서도 다르지 않아, 서구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은 성 통제와 트랜스젠더 배제를 수단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 스포츠 기구들을 식민화하고 있다.

5. 트랜스젠더 포용 담론: 같음에서 비롯된 포용

같음에서 비롯된 트랜스젠더 포용 담론은 배제 담론의 반대에 위치한다. 스포츠계 안팎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것

46 Scott L. Morgensen, “Settler Homonationalism: Theorizing Settler Colonialism within Queer Modernities,”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6(1-2), 2010, pp. 105~131.

47 Scott L. Morgensen, “Settler Homonationalism: Theorizing Settler Colonialism within Queer Modernities,” p. 160.

48 Scott L. Morgensen, “Settler Homonationalism: Theorizing Settler Colonialism within Queer Modernities,” p. 160.

은 고무적인 일이다. 시스젠더 선수, 코치, 스포츠 팬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대회 참가에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에 트랜스젠더포비아를 위한 공간은 없다”(Transphobia Has No Place in Action Sports)⁴⁹라는 제목의 기사가 2019년 6월에 익스트림 스포츠 매체인 『테톤 그라비티 리서치』(*Teton Gravity Research*)에 실렸는데, 이 기사는 여자 월드컵 레이스에서 3위에 입상한 산악 자전거 레이스 선수 케이트 웨덜리(Kate Weatherly)에 가해진 비판에 대한 응답이었다. 트랜스젠더 포용이 복잡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자는 웨덜리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0.1 nmol/L이었다고 조심스럽게 강조했다(시스젠더 여성의 평균 수치 범위는 0.4 nmol/L~2 nmol/L이다.).

2015년, 트랜스젠더 여성 체육인이며 의학물리학자인 조안나 하퍼(Joanna Harper)는 트랜스젠더 원거리 육상 선수들이 테스토스테론 억제 요법(testosterone suppression)을 받기 전후의 운동 수행 능력을 비교하는 새로운 주제의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은 “성전환 전후, 각각의 젠더에서, 거의 같은 수준”⁵⁰의 운동 수행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하퍼는 이 연구 결과를 다른 스포츠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연구 결과는 트랜스젠더 포용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트랜스젠더 여성과 시스젠더 여성의 “같음”에 기반한 트랜스젠더 포용 논리들은 차별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다. 트랜스젠더 여자 선수들도 일정 기간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젠더 확정 수술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신체가 “남성적 이점”(male advantage)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기본 신체 형태(신장, 골밀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 이는 트

49 <https://www.tetongravity.com/story/adventure/transphobia-has-no-place-in-action-sports>

50 Joanna Harper, “Race Times for Transgender Athletes,” *Journal of Sporting Cultures and Identities*, 2015, p. 8.

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평균 근육량으로 더 무거운 몸을 지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0 nmol/L이 최고 수치로 자주 이용되지만, 현실에서는 생식샘을 제거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많은 경우 시스젠더 여성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⁵¹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지지하는 발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발언들은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자들이 더욱 널리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포용 주장들은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시스젠더 여성 평균 미만이며 “남성적 이점”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변수를 무시한-옳건이)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slippery slope)다. 여기서 “남성적 이점” 논리는 특히 안드로겐 과다증 규정을 정당화한다.

안드로겐 과다증 규정은 IOC의 성 통제 정책 중 악명 높은 성별 감정 테스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여자 선수가 “지나치게 남성적”이거나 “충분히 여성스럽지 않을” 때 이 선수를 제외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조치들은 여성의 경쟁할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남성에 의한 스포츠 지배와 남자 선수가 더 우월하다는 믿음만 강화할 뿐이다. 이런 논리 연결, 또는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는 스포츠 성 통제 정책을 설계할 때 조안나 하퍼가 한 역할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하퍼는 의학물리학자로서 IOC의 트랜스젠더 정책 조언자로 참여했고, 2015년 새로운 트랜스젠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과 인터섹스/DSD 여성들에 적용되는 테스토스테론 최고 허용치를 10 nmol/L로 설정했다. 하퍼는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포용 옹호자였다. 그가 설계에 참여한 규정 중, 일부 인터섹스/DSD 여성

51 E.g. Joanna Harper, “Sport’s Transgender Debate Needs Compromise not Conflict,”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port/blog/2019/apr/01/sports-transgender-debate-compromise-not-conflict> (2019, April 1).

에게 선수 은퇴나 의학적으로 신체를 바꾸도록 하는 효과적인 최종 제안 방법에 관한 것도 있다.

이후 IAAF는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서 2018년에 최고치를 5 nmol/L로 낮췄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800m 금메달리스트 캐스터 세메냐(Caster Semenya)는 결국 정상급 선수일 때 은퇴를 해야 했다. 세메냐는 의학적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 nmol/L 제한 기준은 이후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IAAF가 세계육상으로 바뀌면서 IAAF의 예전 규정이 “트랜스젠더 선수를 위한 세계육상 적합 규정”(World Athletics Eligibility Regulations for Transgender Athletes)으로 대체되어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기 때문이었다.

스포츠계의 성 통제는 서구의 의학 당국이 설정한 젠더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여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쳐 왔다. 시스젠더 여성과의 같음에 기초하는 트랜스젠더 포용 담화는 호르몬 억제를 옹호하며 결국 “공정함”과 “안전”이라는 위험한 논리가 동원된다. 세계육상의 새 트랜스젠더 정책에서 세계육상 조직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바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 바람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적합한 대회 참가이다.

세계육상은 이런 참가를 격려하고 용이하게 하길 바라는데, 스포츠 대회에서 남자 부문과 여자 부문으로 분리된 대회에서 모든 참가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⁵²

세계육상과 IOC, 또한 이들과 같거나 비슷한 성 통제 정책을 도입

52 World Athletics 2019.

한 스포츠 기구들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경쟁을 성취한다. 하지만 이 성취는 호르몬이 너무 높아서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퀴어라는 타자들을 추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캐스퍼 세메나와 아네트 네게사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그 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소한 현재는 이런 훌륭한 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6. 나가며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보수 성차별주의자들이 새로운 종류의 연합을 만들어 스포츠에서 여성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 페미니스트 정치의 “비틀림”이다. 이렇듯 비틀림된 “페미니즘” 담론은 트랜스젠더 여성과 인터섹스 여성에 대한 차별에 가담하고 성(sex/gender)에 대한 서구의 인식을 강화하면서 이성애 가부장주의와 서구의 세계 지배에 이용된다. 트랜스젠더 포용 담론이 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의 같음에 기초한 논리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한, 이분법적 젠더 구분이라는 억압 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국 공모하는 것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자 선수를 여자 대회에 포용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서구의 보수 언론을 인용하는 일본 “페미니스트”의 수가 많아진다는 소식은 우려를 자아낸다. 일본의 이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스포츠, 여자대학, 화장실, 대중목욕탕 등 여성전용영역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서구의 보수적 뉴스의 “안전”과 “공정함” 논리를 동원하거나 수입한다. 사라 아메드(Sarah Ahmed)는 영국에서 TERF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과거의 생물학적 온전함과 결별하는 중에도, 이른바 젠더 비판적 태도가 우리 몸에 가해지는 젠

더 시스템의 압박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조이고 있다.”⁵³

트랜스젠더 선수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트랜스젠더는 자신들이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극복한 점, 더구나 트랜스젠더포비아적인 스포츠 세계에서 커밍아웃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혹시나 트랜스젠더 여성이 시스젠더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강하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트랜스젠더 여성들 중 극소수가 정상급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재능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시스젠더 여성도 마찬가지다. 무척 적은 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극히 드문 수준의 재능과 높은 수준의 코치, 훈련 환경을 누리는 행운으로 정상급 무대에 선다. 이것은 공정한 것인가? 이 많은 것을 누리는 여자 선수와 누리지 못하는 여자 선수가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가? 빈곤한 국가 출신 선수가 부유한 국가 출신 선수와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가? 소수 엘리트 여자 선수들의 우승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여성 전체에 스포츠를 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페미니스트 운동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목적이 경제적 이익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즉, 트랜스젠더 소녀가 여자 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시스젠더 소녀가 우승할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부정 행위가 없는 한, 어느 대회에서든지 승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근본적인 트랜스젠더 포용을 요청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 포용은 동일함 때문이 아니라 성 이분법, 생물학적 결정론, 이성애 가부장주의의 억압적 체도를 해체하기 위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전투에서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최전선에 놓여 있다. 페미니즘이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해 트랜스젠더

53 Sara Ahmed, “An Affinity of Hammers,” *Transgender Studies Quarterly* 3(1-2), p. 30.

여성을 타인으로 취급하고 페미니즘 목적에 대한 장애물 또는 적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 이 글은 영어로 집필되었으며 이경태(한영 통번역사, interpreter.klee@gmail.com)가 번역했다.